매직 5 - 마법 같은 스위스 대중교통.

아름답고, 편안하고, 간단하고, 스위스답고, 다채롭고
스위스 현지인은 이렇게 여행한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한 장만 준비하면 만사 오케이

최근 강릉 DMO 주관의 `여행자 중심의 관광불편사항 실태 조사사업 결과 보고회'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과 수하물 보관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다. 여행 길은 편해져 짐의 크기는 늘었지만, 정작 짐 보관 장소가 없어서 관광객들이 애를 먹는 다는 것.

이렇듯 관광에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큰 중추를 담당한다. 대중교통이 발달한 나라 스위스는 오히려 기차와 버스, 유람선으로 여행하는 것이 더 편안하고 효율적이다. 티켓을 사고, 환승 및 하차를 하고, 연결편을 찾고, 수하물을 운반하는 등 대중교통의 여정이 얼핏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스위스에서는 이런 걱정이 마법 같이 사라진다. 여기에 기차, 버스, 유람선이 스위스를 여행하는 최고의 방법인 이유 5 가지를 소개한다. 각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을 보면 특별한 설명 없이 납득된다.

1.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파노라마 통창
여행은 뭐니뭐니해도 여정이 즐거워야 한다. 스위스의 수많은 파노라마 기차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특히 아름답다. 아름다운 풍경 속을 지나며 승객들은 졸 틈이 없다. 빙하 녹은 물이 콸콸 쏟아지는 협곡부터 만년설이 쌓여 있는 고지대 알프스 봉우리까지, 태고의 계곡부터 야자수가 줄지어 서 있는 지중해풍 호수까지, 여행자들은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파노라마 창문 너머로 그림 같은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만년설의 알프스 봉우리를 향하는 산악 철도에서는 매 정류장이 잠시 내려 쉬어가라고 손짓한다.

영상: https://youtu.be/8xE0Uqd6TXA

2. 이렇게 편안할 수가: 편리성
스위스 기차가 얼마나 편한지는 타본 사람은 다 안다. 품질 우수한 자재로 만든 좌석은 널찍하고 편안해서 다리를 쭉 뻗을 만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대형 수하물을 보관할 공간도 좌석 사이로 나온다. 수하물에 대해 걱정을 놓아도 된다. 미리 예약을 하면, 지금 머무는 호텔에서 아침에 보내서 다음 호텔까지 오후면 도착하는 수하물 탁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고, 예약 없이도 기차역에서 다음 여행지의 기차역까지 짐을 보내면 2 일 내에 받을 수 있다. 짐 없이 여유롭게 기차에 올라 기차 식당에서 정성껏 마련한 지역별 특식을 맛보아도 좋다. 기차 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유람선에서도 연중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상: https://youtu.be/pJKz_hp50q8

3. 이렇게 간단할 수가: 접근성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아름다운 알프스의 산봉우리로 직행할 수 있을 정도로, 스위스의 대중교통망은 오밀조밀하다. 기차뿐 아니라 버스, 유람선까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총 연결 길이가 29,000km 에 달하고, 닿지 않는 여행지가 없을 정도다.

예를 들어, 기차에서 내리면 다음으로 환승해야 할 유람선이나 포스트버스가 이미 기다리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전용 앱, 스위스 트래블 가이드 앱을 설치하면, 여정 중에 빼 놓을 수 없는 볼거리나 유용한

여행지 정보를 알려줄 뿐 아니라, 기차, 버스, 유람선, 산악 철도 등 모든 대중교통의 실시간 시간표를 바로 검색할 수가 있어서, 몇 번 플랫폼에서 내려, 몇 미터를 걸어서 어디서 환승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모든 동선은 구글 지도로 연동되어 있다. 아울러 주요 관광지까지 연결되는 교통편은 거의 30 분 간격으로 상시 운행된다. 무려 해발고도 3,000m 위에서도 상시 교통편이 운행될 정도다. 모든 대중교통편의 싱크로율이 완벽할 정도라 스위스 전역을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탈리아나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같은 접경국으로의 기차 여정도 마찬가지다.
대중교통에 관해 스위스가 그만큼 정평 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영상: https://youtu.be/s4PuMQF8DOU

4. 이렇게 스위스다울 수가 : 진짜 스위스
스위스 대중교통은 스위스 사람을 닮았다. 정확성, 퀄리티, 안전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한다. 이것이 바로 스위스 현지인들이 기차, 버스, 유람선과 같은 대중교통을 선호하는 이유다.
기차, 버스, 유람선에서 편안하게 앉아 창밖으로 지나는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잔하거나 동행과 대화를 나눈다. 출퇴근 길인 이도 있고, 휴가 중인 이도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만이 진짜 스위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셈이다. 현지인들의 시선을 통해서 말이다.

영상: https://youtu.be/_K4mch0jhBQ

5. 이렇게 다채로울 수가: 다양성
향수를 자극하는 퓨니큘러가 여유롭게 풀을 뜯는 소 떼 위를 지나간다. 최신 기술을 장착한 카브리오(CabriO)는 곧 해발고도 2,000m 위를 향해 둥실 떠오른다. 스위스에서는 꼭 한 가지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과거와 현대가 조화롭게 대중교통 서비스에 녹아 있다.
대중교통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목적 뿐만 아니라, 여정 그 자체가 대단한 모험이 되어주는 다채로운 체험이다. 치즈기차(몽트뢰-뻬이덩오), 초콜릿기차(몽트뢰-브록-그뤼에르-케이에네슬레쵸콜릿공장), 캄블리과자기차(베른-루체른)를 타보거나, “레스토랑 인 더 스카이”라는 이름의 파노라마 케이블카를 타고 저녁 식사를 즐기거나, 어린이 동반 가족 기차인 “글로비 익스프레스(루체른-엥겔베르크)는 어른이나 아이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다채로운 스위스의 대중교통은 스위스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신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바로, 혁신과 전통, 체험이다.

영상: https://youtu.be/PlCO80FjZ0s

*** 스위스 대중교통 이용의 화룡정점, 스위스 트래블 패스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구입하면 스위스의 모든 기차, 버스, 유람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심지어 도심지 대중교통도 무료다. 대부분의 산악 교통편은 50% 할인이 되고, 리기(Rigi), 슈탄저호른(Stanserhorn), 슈토스(Stoos)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거기에 500 개 이상의 박물관 입장이 무료고, 프리미엄급 파노라마 기차도 무료다. 자녀들과 동행 시에는 더욱 매력적인데,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소지한 부모 최소 1 인과 동행하는 만 16 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스위스 트래블 패스의 혜택을 무료로 모두 누릴 수 있다. 스위스 패밀리 카드(Swiss Family Card)만 무료로 발급해 가면 된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